

중등 영어 학습자를 위한 다독 읽기 활동의 효용성 탐구*

최 성 희

(경기공업대학)

Choi, Seonghee. (2010). Exploring the effect of extensive reading for middle and high school EFL learner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6(3), 365-395.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extensive reading(ER) implemented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Korean EFL context. Two middle school English teachers and two high school English teachers participated in implementing ER in their classes. Six middle school classes of 239 students and seven high school classes of 268 students participated in ER program guided by the above four teachers. To implement ER, participating teachers had continuously been guided by the researcher about the theoretic reasoning of ER and practical methods for efficient ER in class. The study lasted for two semesters and the teachers and students were surveyed and interviewed during and after the classes. The result showed pretty positive improvement of students' self-confidence, interest and motivation about English through ER implemented in this stud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ould show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ER in Korean EFL secondary school context and a model for ER and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y researchers and in-service English teachers.

[extensive reading/reading materials/reading journal/reading report, 다독/읽기 자료/읽기 저널/읽기 보고서]

I. 서론

영어 읽기 교육은 전통적인 영어 교육에서 가장 강조되어온 것 중의 하나이고, 오늘날 의사소통 중심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장 교실에서도, 특히 EFL 상황에서는 여전히 읽기 교육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인 읽기 교육에서는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문법 교육, 어휘 교육, 문장 단위의 번역이 그 중심을 이루고, 대체로 짧은 글을 완전하게

* 본 연구(과제번호 A00750)는 2008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음.

이해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주된 교육 방법이었으며, 읽기 후 활동으로는 문법 설명과 이해 점검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읽기 교육 방식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것은 참다운 읽기 교육(reading lesson)이 아니라, 단지 문법과 연습 문제를 푸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언어수업(language lesson)이라고 비판하면서(Alderson, Higgins, Wurst, 1985; Alderson, & Urquhart, 1984; Davies, 1995; Hyland, 1990), 이제는 번역, 문법 중심의 텍스트를 가르치는 단계가 아니라, “진정한 읽기”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발전해야 할 단계라고 주장한다(Bamford, 1998; Bell, 1998; Davis, 1995; Jacobs, Davis, & Renandya, 1997; Welch, 1997). 이진경(2009)은 한국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읽기 자료에 대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읽기 자료가 단순한 설명형 서술로 되어있어, 진정성과 자연스러운 표현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영어 모국어 읽기 교육에서는 "pleasure reading," "sustained silent reading" [SSR], 또는 "uninterrupted sustained silent reading" [USSR]과 같은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며(Krashen, 1982, 1993; Nuttall, 1982), 이러한 읽기 과정은 외국어 교육에서의 ‘다독 활동(ER)’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Bamford, 1984; Day & Bamford, 1998; Krashen, 1982).

외국어 교육에서 ‘다독(ER)’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특히 한국의 영어 교육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영어 교육 방법을 찾고자 할 때, ‘다독(ER)’의 교육적 측면과 효용성, 그리고 현장 교실에서의 활용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 동안 제한된 교실 수업 중심이라는 특징을 가진 EFL 상황에서 다독 읽기 활동이 거의 시행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실 수업 위주의 현 EFL 영어 교육 상황에서도, ‘다독 읽기 과정’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이 다독 읽기의 효용성과 가능성에 대해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4 명의 중고등 영어 교사의 자원 신청을 받아, 다독 읽기 과정에 대한 이론적 측면과 현실적 교육 가능성에 대해 훈련을 하고, 실제 현장에서 1 년간 본인이 영어를 가르치는 반을 대상으로 다독 읽기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교사들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한 후 그것을 실제 교실수업에서 사례 연구로서 실행해 보도록 유도 함으로서, 교사들이 앞으로 광범위하게 다독 읽기 활동을 교실 수업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본 연구가 지향한 주요 목표였다.

본 연구의 중요성은 학습자의 발전적인 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이해 가능한 언어 입력(large amounts of comprehensible input)이 필요하다는 전제(Krashen, 1982 참조)에 그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독 읽기 활동은,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 능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즉 다독 읽기 활동의

이러한 효과는 L1 에서 뿐 아니라(Krashen, 1993; Nagy, Herman & Anderson, 1985), L2 에서도(Elley, 1991; Elley & Mangubhai, 1983; Hafiz & Tudor, 1990; Hamp-Lyons, 1983; Krashen, 1997; Mason & Krashen, 1997; Nation, 1997; Welch, 1997) 작용할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영어 교실 읽기 수업이 여전히 글의 상세 구조 이해와 정독(intensive reading, IR)에 대체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독 읽기(ER)에 대한 교사들의 교실 수업 시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경험적 시범을 보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동기는 교사들의 언어 교수법 개발을 위한 학문적 혹은 실제적 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수 방법의 개발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개인적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들은 현장의 실상과 거리가 있는 이론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 교사 교육가와 교사들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결과를 함께 창출 하는 데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점점 실용성 있는 교사 연수가 늘고 있는 현 시점에 부응하여, 본 연구는 연구자와 교사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현장 기반의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새로운 교수 방법에 대해 ‘연구자와 교사가 함께’하는 사례적 모형을 제시하고, 동시에 현 교실 읽기 수업에 다독 읽기 활동을 포함시키는 ‘영어 다독 읽기 지도’의 경험적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Krashen(1993)은 읽기를 가장 효과가 있는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제 2 외국어 능력은 이해 가능한 입력에 의해 향상 되고, 이해 가능한 입력을 더 많이 취할수록, 목표 언어를 더 많이 습득할 수 있다고 한다. 읽기에는 정독(IR)과 다독(ER)이 있는데, 이해 가능한 입력에 효과적인 읽기는 다독이라 하겠다. 언어 습득(acquisition)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은 많은 양의 목표 언어에 노출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Hafiz & Tudor, 1990). 다독이라는 말은 원래 Palmer (1917, quoted by Day & Bamford, 1998)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데, 한 줄씩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문법을 분석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인 정독과, 많은 양의 읽기 방법을 구별 하기 위해서 제안된 말이다.

다독은 언어 교육의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학습자들이 배우고자 하는 새로운 언어로 쓰여진 쉬운 수준의 글을 많이 읽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Bamford & Day, 2004). Bamford 와 Day 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읽고자 하는 책을 학습자 스스로 선정하고, 교사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읽고, 책의 내용이 흥미롭지

않거나 자신들의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려우면 정해진 책을 읽는 것을 중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독이 영어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많은 연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 되었다(Hayashi, 1999; Mason & Krashen, 1997, 2004; Shin & Ahn, 2006). Mason 과 Krashen (1997)은 일련의 세 실험을 통해 다독 학습이 전통적인 읽기 수업보다 효과적이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세 실험 모두에서 다독 학습자들은 빈칸 메우기와 독해 시험에서 통제 집단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 주었다. Hayashi(1999)의 일본의 초급 수준 다독 학습자들의 영어 읽기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도 다량의 책을 읽은 학습자가 소량의 책을 읽은 학습자보다 영어 읽기 능력이 더 향상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독에 대한 선행 연구 중에는 학습자들의 영어 읽기의 태도에 미친 다독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Mason 과 Krashen(1997)은 세 번 연속적으로 다독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 연구에서 실험 집단의 학습자들의 영어 읽기에 대한 태도가 많이 향상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연구의 실험 집단은 일본의 대학생들로, 한 학기 동안 50 권의 단계별 읽기 교재(graded readers)를 읽고 책의 내용을 짧게 적고, 모국어인 일본어로 그들의 느낌, 생각, 그리고 진전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적게 했다. 실험 초기에는 책을 읽고 싶어 하지 않은 학습자들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책의 내용을 더 많이 이해했으며, 더 읽고 싶어 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 Elley (1991)는 또한 싱가포르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영어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변화를 보이면서, 책 읽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 했다고 보고 하고 있다.

일기 형식으로 적은 사례연구에서 Ching(2002)은 그녀의 목표 언어인 일본어를 학습하면서 그녀의 수준에 맞는 일본어 책을 읽음으로써 새로운 언어습득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좌절을 흥분과 기쁨으로 바꾸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Hayashi(1999)는 일본의 초급 수준 영어 학습자대상 연구에서, 다독이 학습자들의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그들의 책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에 대한 흥미가 책을 더 읽고 싶어하는 동기를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Asraf 와 Ahmad(2003)의 연구를 살펴보면, 말레이시아의 교외에 위치한 중학교 세 곳에서 읽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연구 목표는 다독을 통해서 학생들의 다독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목표어의 실력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연구 초기에는 학습자들이 다독에 대한 동기를 거의 보여주지 않았으나, 연구가 진행 되면서, 많은 학습자들이 읽기가 쉬워졌음을 보여주었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태도변화는 연구에 참가한 교사들의 일기에서 보여졌다. Yang(2009)은 한국 학생들의 읽기 동기와 읽기 행동 양식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내재적인 동기가 읽기 행동 양식에 가장 영향을 주었으며, 읽은 시간과 학생들의 내재적인 동기가 상당히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위의 많은 연구들이 본 연구가 지향하는 다독, 즉 더 많이 읽을수록 읽기에 대한 동기가 높아지고, 읽기 행동 양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영어 교육에서의 다독 읽기 지도 활성화 방안에 주요 목표가 있으므로, 교수 방법 개발에 대한 동기가 확실하고, 적극적인 교사들 가운데 중학교 영어 교사 2 명, 고등학교 영어 교사 2 명을 선발하였고, 이 중에서 중학교 교사 1명은 석사 과정 생 연구 참여자로 동시에 참여하였다.

선정된 교사들의 근무 학교는 학생 수준과 가정환경이 높은 대도시 중학교 1 개교, 학생들의 수준과 환경이 높지 않은 시골 중학교 1 개교, 학생 수준과 가정 환경이 평균 정도인 중소 도시 고등학교 2 개교로 파악 되었다. 연구 대상 학급은, 선발된 교사가 소속된 학교에서 직접 가르치는 학급 중에서 임의로 선정된 한 학급의 학생들이 본 연구의 사례 연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각 교사의 상황 별로, 가능한 조건에서 자유롭게 다독 선정 학급을 정하도록 하여, 연구가 진행된 학년, 학급, 학생 수, 다독의 진행 시간 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표 1 참조).

표 1
연구 참여자

연구교사	학교	학년	학급 수	학생수	다독시간
SDK (S)	K 중학교	1	5	202	심화보충 45 분과 과제
YHR (Y)	B 중학교	3	1	37	수업시간 15 분과 과제
CYJ (C)	M 고등학교	2	3	123	수업시간 10 분과 과제
KJY (K)	W 고등학교	2	4	145	수업시간 10 분과 과제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08 년 봄학기 와 가을학기의 총 1 년간의 장기 질적 연구로 계획된 연구로서 교사 훈련과 훈련된 교사들의 현장에서의 다독 사례 연구 및 지도가 그 핵심이며, 단계별 실행은 다음과 같다.

1) 교사 훈련과 평가 회의

본 연구가 참여 교사들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므로, 교사 자신들이 다독 읽기의 효용성과 가능성에 대해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교육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절차중의 하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독의 모든 장점들이 현장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세밀하게 기획하여 연구 초기에 두 번,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세 번 교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대학교원 연구자가 2008 년 3 월과 4 월, 즉 연구 초기에 참여 교사들에게 다독 읽기 지도를 위한 이론적, 실제적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두 번의 교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초기 두 번은 다독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 다독 지도활동을 위한 안내를 중심으로, 2 시간 정도 이론적 설명을 하고 다시 2 시간 정도는 토론을 통해 방향성을 잡도록 진행하였다. 학생 스스로 읽기 자료를 고르기, 학생의 언어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자료 읽기, 읽기 후 활동을 반드시 실시하기, 교사도 학생과 함께 읽으며, 좋은 독자의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 주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읽기 활동 진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교사의 지속적인 안내와 지도 등을 다독 읽기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특징으로 많은 학자들이 중요시하고 있어 이러한 지도 모형이 제시되었다(Bamford & Day, 1997; Campbell, 1989; Davis, 1995; Fielding & Roller, 1992; Fry, 1991; Gambrell, 1979; Hill, 1997; Kim & Krashen, 1997; Nash & Yun-Pi; Park & Turn, 1987; Raja, 1995; Yu, 1993).

그 후 2008 년 6 월, 8 월과, 10 월에 교사들이 자신의 다독 읽기 지도의 진행을 스스로 점검하고 분석하여 다른 참여 교사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 교사들이 바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 하기 위해, 연구자와 참여 교사 모두가 참가하는 교사 평가회의를 개최하였다. 평가회의 중에는 교사들의 읽기 지도 상황을 공유하고 토의하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 스스로 차후의 교수 방법 전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평가 회의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인 이론적 틀과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2) 다독 읽기지도

(1) 읽기자료의 선정

읽기 자료의 선정에 있어서는, 다독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책의 장르나 내용을 고르도록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책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더 넓히기 위하여,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각 연구 교사들에게 40~ 60 권의 책을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하여, 연구비에서 지원하여 책을 구입하였다. 처음에는 본인들이 고른 책을 가지고 와서 읽고, 다 읽은 후에는 자신이 이미 읽은 책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책을 교환해 가고,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반일 경우 3~5 권 정도의 책을 돌려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학생들이 자신이 가져온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교사가 관리하는 대출양식에 학번, 이름, 날짜, 자신이 기증할 책과 빌려갈 책이름을 기록한 후 자신의 책과 바구니에 있는 책 중 한 권을 교환해서 볼 수 있게 하였는데, 한 명의 학생이 자신의 책을 바구니에서 계속 교환해 본다면 다른 반 학생들 모두의 책을 골고루 읽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자신이 몰랐던 장르나 다양한 수준의 책들을 마음껏 교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읽기활동 지도

① S 교사

S 교사의 경우에는 심화 보충 1 시간(45 분)을 각자 학생 자신이 가지고 온 책으로 묵독(sustained silent reading)을 15 분 하고, 10 분은 과제로 낸 읽기 저널 검사, 그리고 마지막 20 분은 읽은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였다.

② Y, C, K 교사

다른 세 교사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할애 하는 시간이 10 분~ 15 분 정도 이므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였다. 읽기 활동만의 묵독을 하기도 하고, 읽기 저널 검사를 하는 시간으로 쓰기도 하고, 과제로 읽어온 내용을 만화로 그리기도 하고, 읽은 내용을 요약 발표하거나, 발표 후 질문과 답변으로 토의를 하는 등 다양하게 상황에 따라 운영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책의 읽기는 점심 시간, 쉬는 시간이나, 집에서 과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③ 읽기 활동 동기 부여

읽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매월 많은 읽기 활동을 한 우수학생들을 뽑아 상장과 문화 상품권을 상품으로 주었다.

(3) 독서일지 및 독서보고서 작성

학습자들에게 읽은 책의 내용과 느낌을 일주일에 한번 이상 독서 일지를 기록하도록 하였고, 한 권의 책을 다 읽었을 경우 보고서를 쓰도록 하였다. 지속적인 동기 부여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의 독서 일지와 보고서에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안내되었다.

3. 연구 도구

1) 읽기 자료

장르에 구애 받지 않고, 소설 등의 문학적 텍스트, 전기, 신문, 잡지 등 여러 유형의 글을 자유롭게 골라 읽도록 지도하고, 책의 분량과 수준은, 본인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쉬운 수준의 것으로 안내하였으며,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되, 한 달에 한번씩 본인의 수준에 맞고 적절한 책인지를 교사와 상의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유명 두 출판사의 graded level 소설책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비가 지원되어 각 교사가 40 권 정도의 소설책을 선정 구입하여, 학생 본인이 선정한 책을 다 읽은 후 교환하여 주는 제도를 사용하였다.

2) 다독 읽기 활동을 통한 영어 능력 변화 평가척도

본 연구가 읽기과제에 관한 것이지만, 다독 읽기의 효용성이 영어 능력 전반에 걸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사와 학생을 인터뷰하고 설문한 결과로 질적인 변화를 알아보았다. 연구 시초에는 사전, 사후 시험지를 만들어 다독 읽기 활동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양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연구 참여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여, 본 연구가 다독 읽기 활동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효율성에 대해 정의적 질적 가능성을 알아보고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표가 더 우선되어, 단기적인 양적 효과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지 않았다. 또한 학생들도 아무 대가가 제시되지 않는 인위적인 시험에 성실히 임하는 보장도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양적으로 제시되는 시험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다독 읽기 활동의 가능성과, 가능한 모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질적인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교사 재량에 따라 사전 사후 문제를 만들어 편의적으로 학생들의 읽기 능력 변화를 조사하도록 안내되었다.

3) 학생용 /교사용 설문과 서면 인터뷰

학생용 설문지는 연구 초기에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함께 과외 수업 및 기타 방과 후 활동 상황에 관한 질문들, 그리고 다독에 관한 경험을 묻는 사전 설문지와, 자신들이 참여한 다독 읽기 과정의 효과성과 유용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된 사후 설문지 두 종류가 사용되었다(사후 설문지- 부록 1 참조).

교사용 인터뷰는 기본 아이디어만 정해지고 인터뷰 하면서 질문이 구체화 되는 형식(semi-structured)이 사용되었다. 기록을 위한 설문은 큰 주제를 주고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서술형 설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중에 본인들이 지도하고 진행한 다독 읽기 활동의 효율성과 자세한 진행 상황, 교수 방법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서술하도록 안내 되었다 (서술형 설문지- 부록 2 참조).

IV. 연구 결과 및 토론

1. 영어책 읽기 지도 활동

1) 읽기 자료 선정

(1)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 선정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책을 선정하여 구입하라고 과제를 받았을 때,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을 잘 몰라 하였으며, 책에 대한 자신의 흥미도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어 하였고, 또한 비교적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책 사는 것을 부담으로 여겼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 중학생이고, 경기도 시골에 위치하고 중 3 이라도 학생들 대부분이 영어 실력이 높지 않고, 또한 집안 형편도 안 좋은 학생들이 많아서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는 것을 어려워하였고, 책도 사서 준비해 오지 않아서 처음에 고생을 많이 하였어요. 그래서 연구비로 사주신 책으로 처음에 시작하였고, 학교에 내려온 자료로 신청해서 학생들이 읽을 책을 도서관에 많이 사 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Y 교사)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학교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도, 학생들의 주변 실정에 맞는 책의 준비 등 많은 부분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교사가 도와 주어야 다독 프로그램이 가능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예는 고등 학생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읽을 책을 준비해 왔으나, 본인들의 수준 보다 더 쉬운 책을 선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독의 경우에는 어려운 책 보다는 쉬운 책이 더 효과가 있으므로, 아래 K 선생님의 경우에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다독 프로그램을 잘 이끌었다.

학기 초에 Reading for Fun 의 목적을 강조한 책 읽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교사가 준비한 Graded Readers 을 소개한 후, 학생들이 각자의 수준에 맞는 읽고 싶은 책을 구입해 오도록 하였다. 책 선정에 있어서는 성적이 중상위권인 학생들도 원서에 대한 부담감으로 길이가 짧고 내용이 쉬운 책(level 1~2)을 선호하였다. (K 교사)

또한 아래 예에서 표현되듯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한 책의 종류는 이미 언급되었듯이 쉬운 책, 그리고 한국어 설명이 된 부담이 덜한 책, 또는 시중에 인기 있고 흥미가 끌리는 원서를 선호하였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책은 일단 분량이나 내용에 부담이 없고 학습자 수준이 명기되어 있으며, 단어나 간단한 설명을 한국어로 첨가해 준 Language Learner Literature 이었고, Popular Original text 로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Harry Potter>나 <Charlie and Chocolate Factory>를 선택한 아이들이 꽤 많았다. 몇몇 상위 수준의 아이들은 Adult Literature 인 <Devil wears Prada>등을 선택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아이들이 영화나 한국어 번역본을 통해 원문에 대한 배경지식, 친밀감과 호감을 갖고 있어서 용감하게 선택했다고 한 답변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책을 선정한 큰 두 가지 기준은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쉽고 분량이 적거나 한국어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 책이거나 난이도를 떠나 본인의 흥미나 취향에 잘 부합해 책의 내용 자체가 동기유발이 될 수 있는 책임을 알 수 있었다 (S 교사)

그러나 앞서 언급되었듯이 많은 학생들이 최초에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는 것을 어려워하여, 연구가 다시 시작되는 2 학기에는 간단한 테스트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과정을 진행 하였다. 아래 예에서와 같이, 본인의 수준을 더 바르게 파악하고, 책을 고르는 작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중의 단계별 읽기자료(graded reader) 시리즈에 각 레벨별로 한 페이지씩을 복사하여, 읽게 하고 간단히 체크하도록 하여, 스스로의 수준을 인지 하도록 안내하였다.

한 학기 동안 책 읽기 활동을 통해 본 결과 학생들이 대부분 짧고 쉬운 책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런 과정을 어려워한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Oxford Graded Reading Series 중 Starter ~ Level 6 까지 책들 중에서 한 페이지씩 복사해 모아 한 장의 유인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눠준 후 Starter 부터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나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라고 했다. 한 level 에 10 개 이상의 표시가 있으면 자신에게 너무 어려운 책이라는 설명과 함께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찾아보도록 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기회라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또한 2 학기 때에는 이 결과에 맞게 책을 선정하여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활동이었다. (K 교사)

다독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정작 자신의 수준에 잘 맞는 책을 선정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판단되어, Oxford Graded Reading Series 중 Level 1 부터 5 까지 책 중 각 한 페이지를 복사해 모아 유인물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후 모르는 단어나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나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밑줄을 그어 보라고 하여, 자신이 어느 수준의 책을 읽으면 좋을지 스스로 자신의 수준을 파악해 보는 활동을 실시하였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파악한 수준에 맞게 다음 책을 선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고, 학생들이 써 낸 소감 또한 유의미한 내용이 많았다. (S 교사)

위의 인용문에서 S 교사가 학생 레벨 테스트를 하고 난 후 학생들의 소감문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아래 그 예가 제시된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의 레벨을 대체로 정확히 파악하였다.

레벨 1, 2 는 이해가 되지만, 레벨 3 부터는 모르는 단어도 많고, 아는 단어로 구성된 문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 하지만 단어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레벨 3 까지는 소화할 것 같다. (학생 1)

(2) 흥미 있는 책 선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준을 일차적으로 고려하였고, 두 번째로는 흥미 있는 책을 선정하고 안내해주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기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학생들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수준을 모두 기록해 놓고, Level 4~5 수준을 읽어도 무난하다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되도록 Original Work 를 읽도록 권장하였다.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내용이나 작품성을 입증 받고 대중적으로도 인기 있는 양질의 작품을 읽도록 하기 위해 몇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연구자가 직접 구입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읽도록 대여도 해 주었다. 총 9 개의 작품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 작품들은 아래와 같다. (표 2 참조) 아래 작품들은 연구자가 위 작품을 모두 읽어보고 나름대로 책의 어휘나 내용의 난이도를 판단해 본 것이다. *표시가 많을 수록 난이도가 높은 작품이다.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작품은 쉬운 난이도 중에서는 “Charlotte’s Web”이었고, 난이도가 높은 작품 중에서는 “The Giver”이었다. 위 작품들의 내용이 워낙 학생들에게 공감할 만한 것이고, 뉴 베리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거나 나름대로 작품성이 뛰어나고 인지도도 높은 작품들이기 때문인지, 책을 소개 받고 읽은 학생들의 반응은 모두 좋았고,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많은 학생들에게 읽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S 교사)

표 2
S 교사가 권해준 흥미 있는 영어 읽기 책 목록

Title	Author	Level
Stuart Little	E. B. White	**
Charlotte's Web	E. B. White	**
Number the Star	Lois Lowry	***
The Cay	Theodore Taylor	****
The Giver	Lois Lowry	****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R. Dahl	***
Holes	Louis Sachar	****
The Outsiders	S.E. Hinton	*****
Hatchet	Gary Paulsen	****

*가 많을수록 수준이 높음

2) 읽기 후 활동

(1) 저널 쓰기

아래 내용에서처럼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읽은 후 활동으로 저널을 쓰도록 하였다. 1 시간 또는 한 권마다, 또는 2 주마다 등, 저널을 쓰게 하는 시기와 분량, 방법 등은 학생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다양하였다. 또한 영어나 한글도 자유롭게 학생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과제가 주어졌다. 대부분의 교사가 저널에 코멘트를 해 주었는데, 문법 수정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동기를 주는 코멘트를 주로 하였다.

2 주에 한 번씩 저널을 걷어 격려해주는 comments 와 싸인을 해 주었으며, 학생들의 영어로 쓴 저널을 검사할 때는 문법이나 단어 수정은 배제하고 내용에 관한 comments 만을 했다. one hour sticker 를 만들어 읽은 시간이 한 시간이 넘을 때 마다 도장을 찍어주고 교실 게시판에 걸어두어 자신이 얼마나 읽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또한 서로 자극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자 했다. 상위권 학생들은 영어로 저널 쓰기 활동도 편안히 즐기며 한글로는 한 두 줄 쓰던 저널을 5, 6 줄 씩 쓰기도 했으나 중, 하위권학생들 가운데에는 영어로 저널을 써야 하는 부담감으로 영어책 읽는 것이 부담스러워 진다고 한 학생들도 있었다. 그래서 6 월말쯤에는 영어로 저널 쓰는 것을 권장하되 한글로 쓰는 것도 인정했다. (K 교사)

학생들이 책을 읽을 때마다 수시로 My Reading Journal 을 쓰도록 하였다. My Reading Journal 은 영어로 쓰든 한글로 쓰든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반드시 교사가 그 내용에 대해 Free Comment 를 써 주어 동기를 유발하였다. Free Comment 는 철저히 내용에 대한 동감을 나타내는 말이었고 문법 수정이라든가 어법을 고쳐주는 등의 것은 가급적 하지 않았다. (Y 교사)

또한 참여 교사들이 학생들의 저널쓰기에 대한 적응 정도의 수준에 따라, 그리고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저널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안내와 지도를 시도하였다. 매일 정해진 대로 자신이 쓰던 틀대로 저널을 쓰는 것 보다, 상황에 따라, 주인공에 대한 캐릭터 분석이나 책 읽은 후 느낌, 좋은 표현 등을 쓰도록 하였다. 선생님이 저널쓰기에 대해 주요 팁이나 주제를 바꿔가며 지도하고 저널 쓰기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를 하여 읽기와 저널 쓰기에 동기를 부여하였다.

매시간 학생들이 선택한 책을 가지고 silent reading 을 10~15 분 정도 한 후 학기 초에 미리 나눠준 journal 양식에 따라 책제목과 읽은 페이지를 표시한

후, 읽은 내용을 기록하는 활동을 5 분 정도 실시하였다. 3 월 한 달은 읽은 줄거리를 한글로 기록하는 활동을 하다가 4 월부터는 주인공에 대한 느낌 쓰기, 캐릭터 분석이나 책 읽은 후 느낌, 알고 싶은 단어 2 개 찾아보기, 맘에 드는 표현 1 개 찾기, 듣고 싶은 표현이나 하고 싶은 표현 써보기, 등 매일의 저널쓰기 팁을 전체적으로 주어 일률적인 줄거리 쓰기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하고 흥미 있는 활동이 되도록 시도했다. 5 월 중순부터는 영어로 저널내용을 쓰는 활동으로 바꾸었으며, 학생들에게 문법에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영어로 줄거리나 독서 감상을 쓰라고 했다. (K 교사)

계속 줄거리를 쓰는 활동보다는 매일매일 선생님의 팁에 따라 저널 내용을 바꿔가며 쓰는 것을 더 선호했다. 특히 주인공 캐릭터에 대한 느낌이나 독서 후 감상 쓰기를 재미있어 했다. (C 교사)

마지막으로 읽기 저널을 쓸 때, 읽기 활동의 진정한 목표는 많이 읽는 것이지, 읽은 것을 확인하는 일이 주요 목표는 아니므로 학생들이 읽기 후 활동이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참여 교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위권 학생들은 잘 따라 하나, 하위권 학생들은 잘 못 할 수 있으므로, 저널 과제가 어렵거나 부담이 되면 안되므로, 최대한 읽기를 지속시키기 위한 확인 체크로서 쉬운 과제가 안내되어 학생들의 읽기에 대한 동기와 지속적인 활동을 이끌었음이 보여진다.

Reading Diary 를 쓸 때, 그날 읽은 부분에 대한 간략한 줄거리, 느낌, 모르는 단어, 좋았던 표현, 부모님의 코멘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써서 읽은 증거를 보여주지만 한다고 설명했다. 본인의 취향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으로 Diary 를 쓰도록 하고, 읽었다는 보람을 느끼기 위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대부분 놓치지 않고 Diary 를 쓰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간혹, 몇몇 영어 작문에 익숙한 상위권 학생들은 영어로 소감을 쓰는 경우도 많았다. 물론 저널을 성실히 쓰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지만, 자유롭게 읽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호릴까 염려되어 절대 강요를 하지 않고, 간혹 서명을 해 주면서 잘 된 내용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읽어주고 격려해 주거나 사탕 등의 보상을 하면서 활동을 권장하였다. (S 교사)

(2) 스토리텔링 활동

읽은 후 활동으로서, 읽은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다른 학생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동기를 주도록 읽은 이야기를 짝이나, 그룹 또는 학급에서 발표 하도록 하는 스토리텔링 활동을 하였다. 아래 예에서 보여지듯이 학생들은 이야기를 요약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스토리텔링 활동을 재미있게 진행하였고, 요약하기와 발표 능력을 길러주는 좋은 읽기 후 활동으로 평가되었다.

각 반에서 4-5 명이 한 그룹이 되어 교사가 지정해 준 level(한 페이지 분량)하나를 읽고 발표하는 활동을 했다. 학생들은 한 페이지 분량의 내용만을 읽고 그 전, 후에

일어날만한 내용을 추측하여 이야기하기도 하고, 대화의 내용을 추측하여 드러나지 않은 주인공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도 하고, 또한 이야기의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해 발표하는 등 교사가 기대한 것 보다 더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내어 듣는 학생이나 발표하는 학생 모두 즐거웠던 활동이었다. (K 교사)

책을 읽은 후 지금까지 읽었던 책 내용을 짝과 번갈아 이야기 하며 서로의 내용을 받아쓰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학생 몇 명이 앞에 나와 전체 학생들에게 자기의 책을 소개하고 내용을 이야기 하는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의 반응은 그냥 저널만 쓰는 것 보단 이렇게 내 책의 내용을 짝에게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신나고 재미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을 요약해서 잘 전달하는 것이 생각보다 꽤 어렵다고 하였다. (C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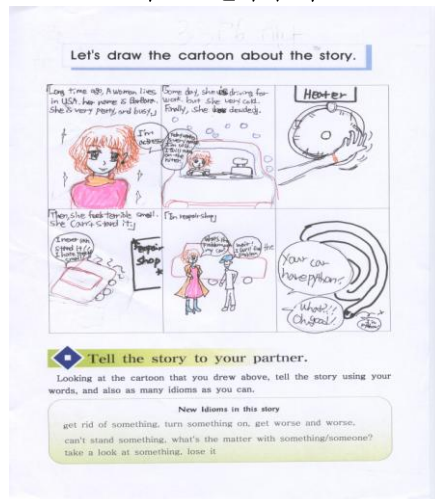
(3) 읽은 내용을 그림과 글로 표현해 보기

참여 교사들 중에 두 교사 (Y 교사와 C 교사)가 읽기 후 활동으로 읽은 내용을 만화로 표현 하는 활동을 시도 하였는데 학생들이 흥미롭게 잘 따라 하였으며, 영어 실력 보다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선호 하여, 영어 실력이 좀 약하나, 만화에 흥미 있는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영어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 외 읽은 내용을 편지로 써보기 등의 활동도 시도되었다.

읽은 책 중 재미있게 읽은 책에 대한 내용을 만화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 따라 하였고 특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선호하였다. (Y 교사, 그림 1 참조)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작품의 줄거리를 만화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하였는데, 학생들이 흥미롭게 하였다. (C 교사)

그림 1
만화로 표현하기 예



자신이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책을 친구에게 소개하는 편지를 써 보는 활동을 하였는데 학생들의 쓰기 수준이 높지 않아, 안내 글을 주고 빈칸을 채우는 편지 글을 시도 하였다. (C 교사, 그림 2 참조)

그림 2
편지 글 쓰기의 예

3. Level of the book : Grade 2
 4. I read all / 38 pages of the book.
 5. Starting date: 4/19 Finishing date: 4/24

◆ Write a recommendation letter to your friend.
 Did you like this book? If so, would you like to recommend this book to your friend?

Dear 유지

I just read a book and want to tell you about it. The title of the book is Stories from the five towns. The author's name is Arnold Bennett. This book is about two brothers lived in five towns. two brothers no talk each other. they communication are block board. they hate each other.

The story is humorous and interesting. This book is enjoyable to read.
 I like this book very much because All stories very humorous and moving to me, each stories appeals to thought and can be easily read.
 I think you enjoyable to read and you will have a good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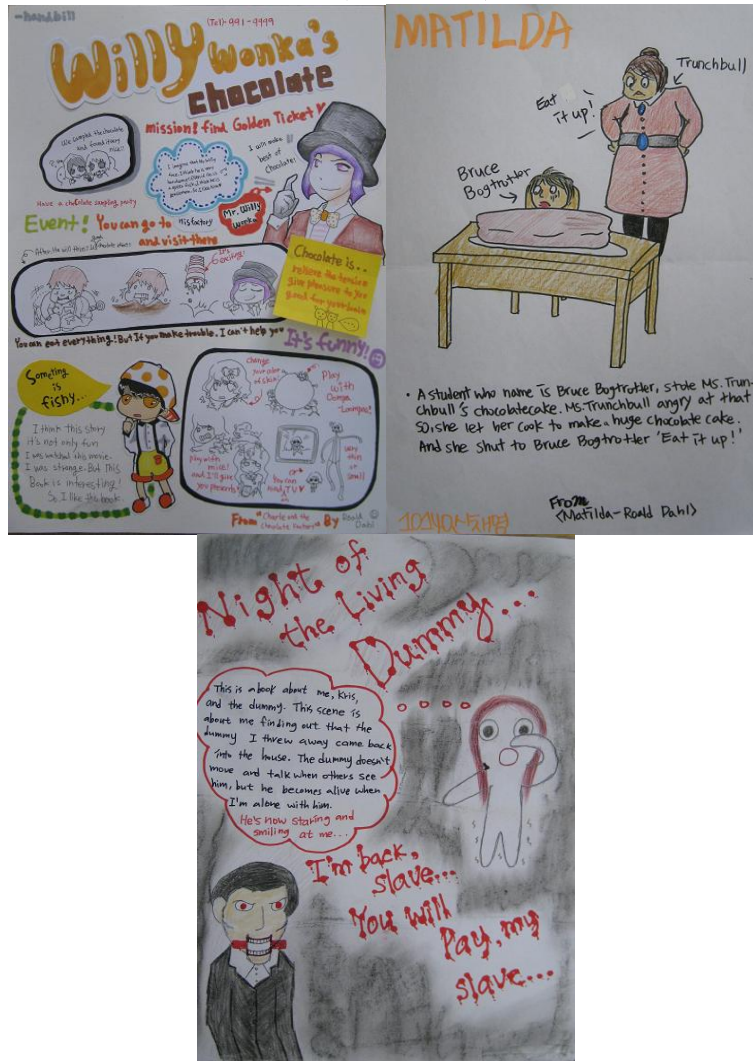
your dearest,
유지

학기를 마감할 때 그 동안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명 깊은 책을 골라 포스터 만들기를 한 교사의 경우에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고, 평소에 소극적으로 발표를 안 하던 학생도 포스터 만들기를 통해 발표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된 좋은 읽기 후 활동이다(그림 3 참조).

1 학기에 자신이 읽은 책을 소개하도록 발표를 시키는 활동을 해 보았는데, 학생들이 너무 소극적이고 발표를 하려 하지 않아서, 짧은 시간에 많은 작품을 소개받을 수 있는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자신이 읽은 책을 홍보하는 그림 포스터 자료를 만들어 와서 잘된 작품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미리 사전에 학생들에게 해당준비물(자신이 읽었던 책 중 가장 감명 깊었거나 재미있었던 책 한 권, 도화지 및 그림도구)을 가져 오도록 하고, 자신이 홍보하고 싶은 책 중 가장 인상적이거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을 찾아서 다시 읽어보고, 그 부분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느낌이나 인상적이었던 대사나 내용을 발췌해 써 보는 포스터 자료를

만들도록 하였다. 각 학급에서 가장 잘 된 작품을 선정하여 상품을 주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발표를 통해 홍보해 보도록 하였는데,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 입장에서 재미있는 여러 작품들을 홍보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한, 활동자체가 모두 자신이 흥미를 가진 책을 홍보하는 그림활동이었기 때문에 내적 동기부여가 확실한 매우 의미 있는 좋은 활동이었다. (S 교사)

그림 3
포스터 만들기의 예



(4) 스스로 만든 문제로 읽기 후 자가 시험

읽은 활동을 체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스스로 외어야 할 단어정리를 하게하고, 스스로 만든 단어 시험지로 시험도 실시 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 각자 읽는 책이 다르므로 단어 정리나, 시험지는 스스로 만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문장으로 시험지를 만들 수도 있으며, 이러한 시험지를 읽기 후 활동으로 이용 할 경우 학교에서 영어 시간의 수행평가 시험에 반영 하기도 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유도하였다.

학생들이 읽은 책 중에서 자신이 외우고 싶은 단어나 표현을 40 개 찾아서 A4 에 뜻과 단어를 정리한 프린트 1 장과, 시험 볼 수 있도록 뜻이나 단어만으로 되어 있는 프린트 1 장을 만들라고 했다. 시험 볼 프린트는 제출하고 2 주 동안 남은 프린트로 공부한 후 다시 시험지를 교사로부터 돌려받아 각자 단어테스트를 하는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 모두 자신의 수준에 맞는 시험지로 시험을 치고 자기가 스스로 채점하여 점수를 받는 자율 시험 활동이었다. 80%이상의 학생들이 35 개 이상 맞췄으며, 문장을 40 개 선택하여 시험 본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어를 공부해 시험 봤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를 선택한 학생들과 쉬운 단어를 선택한 학생들이 섞여있었다. 수행평가에 포함된 활동이었지만 난이도에 따른 추가점수는 주지 않았으며 30 개 이상은 pass 30 개 미만은 fail 로 나누어 학생들 스스로 세운 목표에 맞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단어를 선택하여 시험도 치고 평가도 받는다는 점을 새로워하며 이런 평가방식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 (K 교사)

(5) 보상과 읽기에 대한 동기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읽기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 어린 체크가 가장 큰 동기가 되었다. 앞에서도 언급된 여러 읽기 후 활동도 체크하고 동기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그 외 에도, 스티커, 상장, 문화상품권 등의 물질적인 보상도 동기를 지속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에서 수행평가라는 것으로 교사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성적이 있어서, 이것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방법도 본 연구에서 시도되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저널 검사를 시간마다 하여 저널을 성실히 잘 쓴 학생들에게 사탕 등의 상품으로 적극적인 상을 해 주었고, 아이들이 쓴 저널을 통해 one-hour reading 이 입증이 되면 스티커를 한 장씩 주어, 본인의 파일에 모으도록 한 후, 각 반에서 20-hour reading 을 가장 먼저 한 학생에게 문화상품권과 상장 등의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 주었다. 이러한 보상이 학생들에게 실제로 긍정적 자극을 주어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S 교사)

중간 중간 자신의 읽기 경험을 학급 학생들 앞에서 발표해 보도록 하거나, 사후 설문조사에 써 낸 글이나 기타 다독관련 활동들을 통해 얻은 학생들의

글 중 잘 된 것이 있으면 물질적인 보상 외에도 교사의 글을 통한 긍정적인 피드백(positive feedback)을 주는 등 시시각각 긍정적인 강화와 보상을 병행한 것이 프로그램을 비교적 성공시키게 된 중요한 동인이었다. (C 교사)
학생들이 1 시간 읽을 때마다 sticker 를 한 장씩 붙여주었고 매달 sticker 수에 따라 이달의 Best Reader 상을 수상하며 학생들의 Reading 에 대한 동기 유발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효과가 있었다. (Y 교사)

2. 다독 읽기 활동을 통한 영어 능력 변화

1) 사전 사후 조사를 통한 읽기 능력 변화

본 연구에서는 읽기 활동 사전, 사후 시험이 체계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각 연구 교사가 가능한 반에서는 시도하였다. 아래 예는 S 교사의 진행 상황인데, 객관식 사전 사후 문제를 진행 한 결과이다. 대체로 다독 읽기 활동을 한 학생들의 독해 실력이 늘어 났음을 알 수 있다.

사전, 사후시험 각각에 일정분량의 글 2 개를 주고 각각의 글을 2 분 동안 읽도록 하고 독해와 관련 있는 객관식 문항과 글 내용에 맞게 순서를 정렬하는 문항을 역시 각각 제한시간 1 분을 주고 풀도록 하였다. 시험에 출제된 독해글과 문제는 경기도영어교사연구모임(www.geta.or.kr)에서 배부한 중학교 3 학년 수준의 cultural reading 자료 중에서 글의 분량과 각각 독해관련 문항수가 사전, 사후테스트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발췌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중학교 1 학년임에도 3 학년 수준의 글을 평가자료로 선택한 이유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경기도내의 중학교학생들보다 평균수준이 대략 상임을 고려해 사전, 사후테스트 사이에 변별력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의도이다. 사전, 사후평가 결과 비교는 아래와 같다. 사전시험의 만점이 20 점이고, 사후시험이 21 점임을 고려해 두 점수를 각각 100 점으로 환산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각각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사전시험에 비해 사후시험의 점수가 향상된 학생들은 총 161 명중 104 명(65%), 점수가 하락한 학생들은 53 명(33%), 점수변화가 없는 학생들은 4 명(2%)으로 점수가 하락한 학생들의 숫자보다 2 배 이상의 학생들의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독해 실력이 비교적 많이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S 교사)

아래 예는 S 교사의 또 다른 진행 상황으로서, 주관식 사전 사후 문제를 진행 한 결과이다. 독해를 마치는 시간을 기록하고, 영어로 요약 하기를 하는 시험으로 진행하였는데, 독해 시간이 단축 되었을 뿐 아니라, 다독 활동을 한 이후 훨씬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사후 시험에서 요약을 더 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 독해와 쓰기 실력이 향상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줄 뿐 만 아니라, 읽기 후 활동으로 영어 저널 쓰기를 한 것의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겠다.

주어진 글을 시간제한 없이 본인의 속도로 자유롭게 읽도록 한 후, 자신이 읽은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록 하도록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읽은 글을 우리말로 요약해보도록 하였다. 역시 객관식 평가 문항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영어교사 연구 모임(www.geta.or.kr)에서 중학교 3 학년 수준의 cultural reading 중 글을 발췌하되 되도록 변별력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전, 사후시험 둘 다 비슷한 분량과 “기원과 역사”에 대한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발췌하였다. 사전, 사후 평가결과 비교해 보면 일단 꾸준히 다독을 해온 학생들의 글을 읽는 속도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측정해보기 위해 사전, 사후시험 후 학생들이 기록해 놓은 시간을 모두 기록해 비교해 본 결과, 사전시험에서 읽은 시간의 평균은 2 분 14 초, 사후 평균은 2 분으로 평균 약 14 초의 시간이 단축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우리말로 요약한 글을 되도록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글을 읽어보고 사전, 사후시험 각각의 글에서 요약한다면 꼭 들어가야 할 내용 5 가지를 선정해 5 가지 내용이 모두 충족된 요약글은 Pass, 충족하지 못한 글을 Fail 로 나누어서 채점을 하였다. 그 결과 사전시험의 요약글이 Pass 인 학생들이 총 30 명(38%)인 것에 비해 사후시험의 요약글이 Pass 인 학생의 수는 총 49 명(62%)이며, 사후시험에서 Pass 를 받은 학생들 모두가 사전시험에서도 Pass 를 받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향상 정도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S 교사)

2) 읽기 이외의 영역에서의 변화

대부분의 연구 교사들이 다독 활동 후 읽기 능력 뿐 아니라, 그 외의 영역에서도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즉 쓰기 능력 변화를 보기 위해 읽고 요약 하기를 과제로 주었는데, 대체로 문장의 길이도 길어지고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더하여서, 단어, 문법 능력도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학기에 쓰기 활동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 학기에 비해 더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의 길이도 훨씬 길어졌으며 치명적인 문법적인 오류의 수도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상위권 학생들은 책에서 읽었던 단어와 문법을 이용해 영작을 함으로써 스스로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여기고 하위권 학생들은 자신들이 영어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쁘게 생각했다. (C 교사)

특히, 2 학기에는 영어로 저널을 쓰는 학생들이 제법 많아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별히 영어로 써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영어로 저널을 쓰다 보면 읽기 능력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영작을 많이 할 수 있어 쓰기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S 교사)

Book Review 시간을 통하여 연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하여 A4 1 장 가량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줄거리를 요약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이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이 읽은 책을 다시 한 번 훑어 볼 기회를 갖고 되고 글을 쓰면서 어휘 학습 뿐 아니라 문법 또한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1 회 실시할 때마다 학급에서 최소한 5 명의 학생들이 앞에 나가 발표를 해야 했기 때문에 영어에 흥미가 많은 학생들은 특히 이 활동을 매우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C 교사)

아래의 예는 특히 학생들의 어휘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스스로 강하게 표현하는 의견들이다. 대체로 학생들은 읽는 도중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지 않고 글의 상황이나 문맥을 통해 단어의 뜻을 대략 추리해 보는 전략을 썼는데, 이는 다독 활동에서 중요시하는 전략 중의 하나이며, 교사에게 안내 받은 이 전략을 잘 사용하였고 어휘 실력이 읽기 활동을 통해 향상되었음을 많은 학생들이 보고 하였다.

- *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Guess reading'을 연습하려고 노력했어요. 방학 때까지 꾸준히 연습을 해보니 이제는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답답해하지 않고 추측하며 넘어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학생 1)
- * 만약 내가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생겨서 감이 안 잡힌다면 1 학기 땀 그냥 넘어가고 집에서 찾아보았는데 언제부턴가 다시 뒷문장, 앞 문장을 모두 훑어보고 그 뜻을 짐작하는 습관이 생겼다. (학생 2)
- * 책을 계속 읽으면서 내가 어휘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잘 이해하려 면 어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학생 3)
- * 1 학기 때는 Level 4 에서 모르는 어휘가 정말 많았다. 그런데 오늘 내 Level 을 보니 정말 기분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 동안 15 분의 작은 시간이었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단어의 뜻을 알아가며 책을 접 하니 효과가 매우 대단했던 것 같다. (학생 4)
- * 영어소설을 읽는 활동을 하고 변화한 점은 다른 영어소설을 읽을 때 더 편해지고 어휘가 늘 은 것 같다는 것이다. (학생 5)
- * 1 학기 때는 Level 3 부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좀 다르다. Level 3 까지는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다. Level 4 에서도 'enthusiastically'라는 단어 하나만 모를 뿐 다 이해되었다. 어휘실력이 정말 많이 향상된 것 같다. (학생 6)

3) 다독 읽기 자료의 분량

아래 예에서 제시되듯이 모든 연구 교사의 학생들이 같은 수준의 분량으로 읽기를 진행 한 것은 아니나, 대체로 한 학기에 평균 3-5 권 정도의 책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 2 학기로 하면 6-10 권 정도를 읽은 것이다. 그런데 학생에 따라 한 학기에 10 권 이상 읽은 학생도 나타났다. 또한 다독 읽기 활동

중에 평소에 영어에 흥미가 없고, 영어 실력이 좋지 않은 학생이 오히려 다독활동에 상당한 흥미를 보이고 열심히 읽기 활동을 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더 주의 깊게 관찰되고,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이 그 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되돌아보고 많이 읽은 학생들은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읽은 책의 목록을 작성해 보도록 하였다. 1 학기 결과를 살펴보면, 학급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었는데, 교내 고사에서 영어 성적이 높았던 2 학년 1 반 학생들은 평균 5 권을 읽었고, 2 학년 2 반은 3 권, 2 학년 3 반은 4 권을 읽었으며, 2 학년 1 반에는 10 권 이상 읽은 학생들이 4 명이나 되었다. 그 중에 이은정(20132) 학생은 교내 고사에서는 40 명 중 39 등을 하는 학생이지만 총 11 권의 책을 읽었고, Reading Diary 도 매우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자극하기 위해 접근법을 달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C 교사)

3. 영어에 대한 정의적 영역의 변화(자신감/흥미도/동기)

1) 영어에 대한 자신감 변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읽기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마치 모국어 읽기처럼 읽기 그 자체를 즐기며, 자신감이 점점 높아졌음을 많은 학생들이 표현하였다.

- * 딱딱한 수업보다는 색다르고 좋은 활동인 거 같다. 책을 싫어하던 나도 어느 순간부터 읽이야기가 궁금하여 계속 읽게 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좋아진 것 같다. (학생 1)
- * 책을 읽으면서 해석을 하고, 책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점에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학생 2)
- * 아직 해석이나 영작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책을 읽기 전보다는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다. (학생 3)
- * 읽기 전에는 한 권이라도 읽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잘 골라 읽는다. 처음에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사전만 찾았는데 이제는 추측하면서 맞춰가니까 재밌다. (학생 4)
- * 예전에는 주어,서술어, 목적어에 신경을 써야 하는 교과서와 문제집 지문을 읽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친근한 영작소설을 가벼운 마음으로 읽다 보니, 긴장도 덜 되고 영어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들었다. (학생 5)
- * 책 읽는 것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저널을 쓰면서 비록 짧게 영어를 썼지만 그렇게 씀으로써 내 수준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영어를 해보니 조금이나마 자신감이 생긴 느낌이다. (학생 6)
- *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읽으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어쩌면 한글로 된 책보다 더 자신 있게 읽은 것 같다. (학생 7)

- * 학기초에는 영어책을 대면하기조차도 꺼려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권은 다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학생 8)
- * 처음에 이 활동을 시작했을 땐 앞이 막막했다. 게다가 첫 번째 책을 어려운 걸 골라서 재미도 없고 그랬는데 읽다 보니까 모르는 내용을 다 알진 못해도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갈 수 있었고 모르는 단어나 숙어도 막혔을 때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 9)
- * 웬지 단편 책 몇 권 읽어보니까 장편 책도 술술 읽을 것 같다는 자신감 정도? (학생 10)
- * 내가 읽을 수 있을까? 하고 겁이 났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읽을 수록 점점 더 어려운 책을 읽어보려고도 했다. 지금은 흥미와 관련해서 책을 읽고 있다. (학생 11)
- * 영어지문 읽을 때 속도가 빨라져서 좋았다. 그리고 단어 하나만 막혀도 읽지 못했는데 지금은 잘도 넘어간다~~ (학생 12)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읽기 활동 후 자신감을 보여 주었는데, 소수의 학생들이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 진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평소에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이 영어 책이 생각처럼 읽히지 않자 자신의 영어 실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 * 영어지문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생각만큼 빨리 읽히지 않아 속이 상했다. 그래서 읽기 과제가 싫어졌다. (학생 13)

위와 같은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수준보다 어려운 책을 선정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사례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사가 수준에 맞는 책을 재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다시 읽기 활동을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2) 영어에 대한 흥미도 변화

학기 초에는 느끼지 못했던 학생들의 흥미도가 점점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내용이 재미있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하여 읽었을 때, 더욱 흥미도가 높아졌으며, 영어책이라는 것을 읽는다는 자체가 흥미가 된 학생들도 있었다.

- * 집에서 몇 번 시도해 봤었지만 실패했었다. 책이 재미없고 이해가 안 되어서였는데 이제 그게 내 수준을 체크해보지 않고 읽어서라는 걸 알고 내 수준에 맞는 책을 읽으니 지루하기만 했던 영어책 읽기에 흥미가 생겼다. (학생 1)
- *재미있는 책을 읽는 것이 좋았고 책을 고를 때에도 무슨 책을 읽을까? 하는 것도 좋았다. 예전에는 책을 고를 때, 쉬운 거 읽어야지, 글씨가 조금이라도 더 큰 책만 선호했었는데, 그림이 없어도 내가 글을 읽으며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리면 되니까, 그 점이 재미있었던 것 같다. 한번 흥미를 가지니까 책을 읽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다. (학생 2)

* 영어책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을 내가 이해했다는 점이 흥미를 준다. 더 흥미 있어졌고, 관심이 더 많이 간다. 새로운 책들도 읽어보고 싶다. (학생 3)

* 딱딱한 영어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배우니 조금 더 접근하기가 편했다. (학생 4)

* 처음엔 귀찮고 재미없었는데 갈수록 책 내용이 흥미진진하다 보니 빠져들게 되었다. (학생 5)

* 엄청 재밌다. 그래서 수업시간 아닐 때도 읽곤 했다. 집에서 읽기도 하고. (학생 6)

* 재밌었다. 물론 간혹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학생 7)

*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점점 더 많이 흥미가 생기는 것 같다. (학생 8)

* 아주 재미있다~ 2 학기에도 계속하면 좋겠고 더 많은 책을 접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학생 9)

* 다른 영어책들을 보면 한번쯤 관심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한 번씩 보게 된다. (학생 10)

3) 영어 공부에 대한 동기 변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시간의 수행평가로 또는 선생님의 숙제로 처음 읽기를 시작하였지만, 점점 활동이 계속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영어책을 읽고자 하는 동기 또한 생겨나고 강해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을 받을 것 같다고 많은 학생들이 인지하게 되어 읽기 활동이 영어 실력 높이고, 계속 읽게 하는 것의 동기가 되었다.

영어라고는 교과서와 문제집 밖에 접해 보지 못한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만 적혀 있는 책을 한 두 권도 아니고 여러 권을 읽었다는 점만으로도 교사로서 뿌듯함이 느껴진다. 학생들이 책을 바꾸러 올 때마다 항상 영어책읽기에 대한 소감을 물어 보곤 했는데, 처음에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학생들도 이제는 스스로 재미있는 책을 골라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다는 게 놀랍다. (C 교사)

영어 자체에 대한 인식 등 동기적인 측면에 대한 변화를 물어보는 항목이었는데, 상당한 비율의 아이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영어다독프로그램의 동기 유발적 요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짧은 기간이지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S 교사)

* 선생님이 읽으라고 해서 읽기는 했지만 재밌게 많은 내용을 읽었고 내가 야자시간에 읽은 내용이 궁금해서 읽은 적도 많았다. (학생 1)

* 처음에는 영어수업 저에 읽는 방식으로 선생님께서 시켜서 읽게 되었는데 지금은 나 스스로가 좋아서 읽는다. (학생 2)

- * 영어 수행평가여서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은 심심할 때 가끔 읽는 것도 좋다. (학생 3)
- * 많은 영어책과 문장들을 접해보지 못하여 긴 글이 나오면 당황부터 했다. 그런 것 때문에 영어책을 읽고 싶었다. 자연스러운 흐름 파악이나 더 빠르게 독해하기 위해서,, (학생 4)
- * 처음엔 그냥 과제라서 읽기 싫고 그랬는데 읽다 보니 재미있고 모의고사 푸는 속도도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아서 요즘엔 자꾸 읽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학생 5)
- * 원래 영어로 된 책을 읽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2학년이 되어서 선생님께서 영어책 읽기를 시키시면서 읽게 되었는데, 이제는 과제가 없어도 읽고 싶다. (학생 6)
- * 평소에 읽으려고 하지 않았던 영어책을 읽게 되어서 좋았고 재미있는 책도 많아서 좋았다. 그리고 영어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의가 있는 것 같다. (학생 7)
- * 처음에는 선생님이 읽기를 시켜서 읽었지만, 나중에는 단어 외우는데 도움이 되는 거 같아서 읽었던 거 같다. (학생 8)
- * 영어 실력뿐 아니라, 독서는 마음의 양식. 마음의 양식이 쌓아지는 것 같다. (학생 9)

4. 다독 활동을 위한 한계점

1) 시간의 제한

(1) 수업시간에 할당된 시간 부족

대부분의 참여 교사들이 다독 활동을 위한 시간의 부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다독이 근본 취지인 ‘기쁘고, 편안하게, 각자의 읽기 속도로’ 읽는 것인데, 수업 중에 주어지는 시간도 10-15 으로 짧거나, 과제로 집에서 주어지면 다른 할 숙제나 공부가 많아, 읽기 활동이 또 다른 숙제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집에서 지나치게 학원등 사설 교육을 위한 별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여유 있는, 읽기 시간이 확보되고, 학교에서는 별도의 도서관 시간 또는 읽기 시간이 교육 과정에 정식으로 편성되는 것도 창의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느꼈던 가장 큰 한계는 주당 1 시간 중 15 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내용 자체에 흠뻑 젖도록 하는 *pleasure reading* 을 경험토록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되도록 수업시간 외에 집에서 또는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읽어들 수 있도록 *Out-class activity* 를 많이 권장하였으나 이 또한 강제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말 그대로 “많이” 읽힐 수 있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다. 무엇보다 시간 확보가 중요할 듯한데, 학교 교육과정상 교과서 진도를 나가기에다 벽차기 때문에 정규수업시간을 활용하는 것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게 된다. 다음 학기에는

학생들이 집에서 읽어오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비교적 강제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 같다. 또한 학교에서도 모국어든 외국어든 학생들이 별도로 읽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되면 좋겠다. (S 교사)

(2) 체크 시간의 부족

다독 활동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활동이기는 하나, 교사가 규칙적으로 꾸준히 체크하고 확인해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금방 느슨해져서 읽기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규 수업을 진행하면서, 진도에 쫓기면서, 매시간 학생들의 읽기 과정을 체크해 주는 것이 교사들에게는 이중의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 확인 과정을 간소화하거나 보다 체계적으로 하여 교사들의 수고로움을 덜고, 학교에서는 이러한 별도의 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에게 보상 취지의 격려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연결 되리라고 보여진다. 또한 다독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독 활동에 대한 교사의 사명감과 신념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다독활동의 기본 취지대로 학생들이 성실히 책을 읽어 준다면 교사는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교사가 느슨해지는 만큼 학생들도 게을러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교사가 Reading Diary 를 매 시간 점검한다면 학생들도 매 번 빠지지 않고 기록할 것이다. 반면에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하게 된다면 극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기록하는 학생을 찾아보기란 힘들 것이다. 아무리 쉬운 영어책을 읽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독서습관이 제대로 길들여지지 않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읽기 활동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끊임없이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점검하고 학생들을 끊임없이 격려해야 한다. (C 교사)

학생들이 워낙 학교정규과정 이외에도 학원, 과외 등 영어와 관련된 과도한 학습량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내적 동기를 유발시켜 자연스럽게 읽히는 데는 역시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야말로 순수한 “다독”의 의미를 살리는 데는 아무래도 많은 제도적, 환경적인 제약이 많은 것 같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동기유발방법, 예를 들어 수행평가점수에 반영한다거나 학교장상을 시상하는 등, 현실적인 학교제도 속에 이 활동을 적극 개입시켜 운영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S 교사)

2) 현실 상황과 영어 공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아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 현장과 사회적 상황에서 영어 책 읽기가 성적을 올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 학생들이 영어 책 읽기가 공부 아니라는 생각에 책 읽기에 몰입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단기적인 효과는 없지만 책 읽기는 장기적으로 영어 실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사고의 폭을 넓히고, 타 문화를 이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외국어 능력 뿐 아니라 보다 폭넓은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교사와 학생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 하고 다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사회의 관심과 배려와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독활동이 하루 아침에 눈에 띄게 영어성적을 향상시켜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적에 특히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마음 놓고 책읽기에 몰입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교사가 한 눈을 팔면 어느 새 단어장을 꺼내어 암기하고 있는 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처한 현실에서 볼 때 수업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독서를 한다는 것이 실제로 경제적인가 하는 의문이 들만도 하다. 이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독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일정 기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준 다음 수업 이외의 시간에 틈틈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K 교사)

V.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은 대학의 주 연구자로부터 교사 훈련과 평가 회의를 통해 이론적 실제적 안내를 받고, 연구 기간 내내 실제 현장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되는 다독 읽기 과정을 학생들에게 직접 지도하고 수업활동에 반영하였으며, 그 결과를 스스로 분석해 보고, 지도 방법을 계속 발전 시켰다. 즉 다독 읽기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모든 가능한 방법과, 다독 읽기 활동을 통한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수준과 흥미에 맞는 읽기 책 선정에서부터, 읽기를 지속 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주는 프로그램, 읽기 후 활동으로서 저널쓰기, 요약하여 말하는 스토리텔링 활동, 읽은 내용 만화로 표현해보기, 포스터 만들어 발표하기, 스스로 만든 문제로 스스로 읽은 내용의 이해를 체크하기 등의 실제적인 많은 좋은 활동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예시들은 그 동안 집중 읽기 지도에만 국한 되어온 한국의 영어 교육 읽기 지도에서 다독 읽기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좋은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독 활동이 영어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서는, 읽기 능력뿐 아니라, 요약하면서 길러진 쓰기, 문법 능력, 특히 모르는 단어라도 추측하면서 길러진 어휘 능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주었다. 또한 다독 프로그램을 통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신감, 영어 대한 흥미와 동기가 상승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FL 상황에서도 교사들과 학생들이 체계적인 훈련과 지원이 뒷받침되면 보다 혁신적인 교수 방법을 개발하고 실행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보여 주었다. 또한 교사들로 하여금 다독 사례 연구과정에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교수 방법 개발에 대해 스스로 분석하게 함으로써, 반성적인(reflective) 교사가 되도록 하며, 연구자가 교사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와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교사와 교사교육가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 교사교육에 관한 정책수립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한국의 교사교육에서는 교사 교육가는 이론을 이야기하고, 교사는 실제적인 경험을 중요시하는 과정에서 이론과 실체가 괴리되고 교사 교육가와 교사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되어왔다. 이를 극복하는 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 교육가(연구자)와 교사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적 이론이 자연스럽게 실제 수업 진행과정에 반영되는 것을 지향하였다. 그리하여 교사들이 이론과 실체를 통합 할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을 기르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 모형의 제시를 시도하였다.

이전의 읽기 지도 연구에서 다독 읽기 활동의 효과성 및 실용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였는데,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 영어 학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독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은 영어로 된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영어실력을 검토해 보고, 자신의 영어학습의 문제점 등을 발견해 보며, 자신의 학습에 대해 반성, 수정, 검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됨으로서 자신감, 내적 동기 등의 정의적 요인들에 작용하여, 영어 수업의 주된 인자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부가하여, 학생들이 교과서에는 만날 수 없는 다양한 읽기자료를 읽음으로써 진정성 있는(authentic) 목표언어를 충분히 접하게 되고 더 나아가 제 2 언어 학습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목표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함으로써 영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읽기지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한국의 중등 영어 읽기 학습에 다독 읽기 지도가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계기가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한 참여 교사의 다독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번 학기에 다독활동을 하면서 가장 주목할 만 했던 점은 다독활동이 영어라는 언어 자체에 대한 흥미와 관심, 영어로 된 문학 작품에 대한 순수한 즐거움 등의 내적 동기를 수업의 주요소로 끌어내었다는 것이 기존 수업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둘 수 있겠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과 소감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아이들이 영어로 된 글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스스로 자신의 영어실력을 검토해 보고, 자신의 영어학습의 문제점 등을 발견해 내려 하고 반성, 수정, 검토, 계획해보려고 했던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른 독서습관 기르기, 영어에 대한 흥미, 자신감 등 내재적 동기 유발의 의미를 가진 활동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영어 학습에 대한 근본적 자기진단, 인지전략적 이해를 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의미 있는 활동인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 총평 설문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이 활동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었고, 새로운 시도를 해 보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교사로서의 소감은 결국 수업시간에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성공적인 경험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요소들 보다 학습자의 동기, 흥미를 유발시키고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프로그램은 모두 긍정적인 수 있겠다는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영어가 학과목 중의 하나가 아닌 흥미로운 언어, 동기유발의 요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S 교사)

참 고 문 헌

- 이진경 (2009). 고등학교 교과서 읽기 자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의사 소통적 관점에서. *영어어문교육*, 15(4), 365-382.
- Alderson, J. C., & Urquhart, A. H. (Eds.) (1984).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London: Longman.
- Anderson, G., Higgins, D., & Wurst, S. (1985). Differences in free-reading books selected by high, average and low achievers. *The Reading Teacher*, 39, 326-330.
- Asraf, R. M., & Ahmad, I. S. (2003). Promoting English language development and the reading habit among students in rural schools through the guided extensive reading program.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15(2). Retrieved February 20, 2007, from the World Wide Web: <http://nflrc.hawaii.edu/rfl>.
- Bamford, J. (1984). Extensive reading by means of graded readers.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2(2), 218-260.
- Bamford J., & Day, R. R. (2004). *Extensive reading activities for teaching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ll, T. G. (1998). Extensive reading: why? and how? *Internet TESL Journal*, 4. Retrieved May 15, 2006,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aitech.ac.jp/~iteslj/Articles/Bell-Reading.html>.
- Campbell, R. (1989). The teacher as a role model during sustained silent reading (SSR). *Reading*, 23(3), 179-183.
- Ching, Y. L. (2002). Extensive reading and language learning: A diary study of a beginning learner of Japanese.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14(1). Retrieved October 7, 2007, from the World Wide Web: <http://nflrc.hawaii.edu/rfl>.
- Davis, C. (1995). ER: An expensive extravagance? *ELT Journal*, 49(4), 329-336.
- Day, R. R., & Bamford, J. (1998). *Extensive reading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ley, W. B. (1991). Acquiring literacy in a second language: The effect of book-based programs. *Language Learning, 41*, 375-411.
- Elley, W., & Mangubhai, F. (1983). The impact of reading on second language learning. *Reading Research Quarterly, 19*, 53-67.
- Fielding, L., & Roller, C. (1992). Making difficult books accessible and easy book acceptable. *The Reading Teacher, 45*(9), 678-685.
- Fry, E. (1991). Ten best ideas for reading teachers. In E. Fry (Ed.), *Ten best ideas for reading teachers* (pp. 6-16). Reading, MA: Addison-Wesley.
- Gambrell, L. B. (1979). Getting started with sustained silent reading and keeping it going. *The Reading Teacher, 32*(4), 328-331.
- Hafiz, F. M., & Tudor, I. (1990). Graded readers as an input medium in L2 Learning. *System, 18*, 31-42.
- Hamp-Lyons, E. (1983). Developing a course to teach extensive reading skills to university-bound ESL learners. *System, 11*, 303-312.
- Hayashi, K. (1999). Reading strategies and extensive reading in EFL classes. *RELC Journal, 30*(2), 114-132.
- Hill, D. R. (1997). Setting up an ER programme: Practical tips. *The Language Teacher, 21*(5), 17-20.
- Hyland, K. (1990). Purpose and strategy: Teaching extensive reading skills. *English Teaching Forum, 28*(2), 14-17.
- Jacobs, G. M., Davis, C., & Renandya, W. A. (Eds.). (1997). *Successful strategies for extensive reading*. Singapore: SEAMEO Regional Language Centre.
- Kim, H., & Krashen, S. (1997). Why don't language acquirers take advantage of the power of reading? *TESOL Journal, 6*(3), 26-29.
- Krashen, S.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Press.
- Krashen, S. (1993). *The power of reading: Insights from the research*. Englewood, CO: Libraries Unlimited.
- Krashen, S. (1997). The comprehension hypothesis: Recent evidence. *English Teachers' Journal, 51*, 17-29.
- Mason, B., & Krashen, S. (1997). Extensive reading in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System, 25*(1), 91-102.
- Nagy, W., Herman, P., & Anderson, R. C. (1985). Learning words from context. *Reading Research Quarterly, 20*, 233-253.
- Nash, T., & Yun-Pi, Y. (1992). Extensive reading for learning and enjoyment. *TESOL Journal, 2*(2), 27-31.
- Nation, P. (1997). The language learning benefits of extensive reading. *The Language Teacher, 21*, 13-16.

- Nuttall, C. (1982). *Teaching reading skills in a foreign language*.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 Park, R., & Turn, J. (1987). Breeding the reading bug. *TELL*, 3, 20-22.
- Raja, M. (1995). A reading program: A SMK Long Lama experience. *Journal of the Sarawak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3, 1-6.
- Shin, I., & Ahn, B. (2006). Th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extensive materials on reading amount, attitude, and motivation. *English Teaching*, 61(1), 67-88.
- Welch, R. (1997). Introducing extensive reading. *The Language Teacher*, 21(5), 51-53.
- Yang, E. (2009). Korean EFL learners' reading motivation and their L2 reading behavior.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4), 217-235.
- Yu, V. (1993). ER programs: How can they best benefit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English? *TESL Reporter*, 26, 1-9.

부록 1

학생용 사후 설문지

이름: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번호: _____

한 학기 동안 영어책 읽기를 실시 하였습니다. 영어책 읽기에 대한 다음 질문에 성실히 답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수업에서 몇 권의 영어책을 읽었습니까? _____ 권
2. 이 수업 전에 영어책을 혼자 집에서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권 정도 읽었습니까? _____ 권
3. 영어책을 읽기 전인 학기초와 비교하여 현재 영어책을 몇권 읽고 난 후의
느낌을 영어책 읽는 것에 대한 자신감, 흥미도, 그리고 동기에 대해서 적기
바랍니다.
 - 3-1: 자신감:
 - 3-2: 흥미도:
 - 3-3: 영어책 읽기의 동기
4. 그밖에 영어책 읽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기 바랍니다

부록 2
교사용 설문지

이름: _____ 재직 학교: _____ 담당 학년: _____

선생님들께서 1년 동안 해오신 다독 활동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진행하신 다독 활동에 대하여
2. 다독 활동 후 학생들의 영어 능력 변화
3. 학생들의 자신감, 흥미도, 그리고 동기에 변화
4. 다독 활동의 좋은 점과 어려운 점
5. 현장에서의 다독 활동을 위한 제언
6. 그 외에 다독 활동에 대해 하고 싶으신 말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최성희
경기공업대학 아동영어과
429-792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1-3
Tel: 031-496-4756
Email: schoi@kinst.ac.kr

Received in July 14, 2010
Reviewed in August 20, 2010
Revised version received in September 15, 2010